

교육목회원 <포도나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다음세대 포도나무 유년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15:5)

매주일 아침이면 1층 유년부실에서는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로 자라가는 초등학교 1~2학년 어린이들의 예배의 장이 펼쳐집니다. 손뼉치고 발 구르며 목소리를 높여 온 힘을 다해 찬양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믿음이 어린이들의 마음에 포도송이처럼 알알이 맺혀갑니다.

교육목회원 유년부 예배는 매주일 2차례 진행되는 데, 예배시간은 1부는 9:30~10:40, 2부는 11:30~12:40까지입니다. 온 몸으로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반짝이는 두 눈으로 말씀을 읽고 배우는 어린



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1시간은 너무 짧게 느껴집니다.

올 한해 유년부 공동체는 ‘L.I.F.E-Live In Jesus as Fruits of Eternity’라는 비전을 가지고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 ①예배 ②말씀 ③기도 ④나눔의 가치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위한 4가지 가치는 일주일에 한번 유년부실에서만 경험되고 훈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교회 각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드리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며, 가족을 위해 서로 기도하고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나눔을 실천할 때에 비로소 완성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유년부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모두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로 거듭나며,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이 일을 위해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 ‘학교’라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홀로서는 첫 단계를 시작한 유년부 어린이들이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비전을 품고 자라날 때, 그들이 속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포도나무 가지들이 되어 생명의 열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유년부 어린이들을 돕기 위하여 포도나무 유년부에는 어린 생명들을 섬기는 40여명의 사랑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아비 된 심정으로 양육하였던 바울과 같이 어린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말씀을 전하는 영적인 부모된 포도나무 동산지기 40명의 교사들로 인하여 유년부 어린이들은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유년부 어린이들의 삶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도록 곁에서 돕고, 믿음의 영양분을 잘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는 포도나무 유년부 동산지기들을 위하여 사랑의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힘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힘차게 뻗어갈 것입니다.

< 정부활전도사 anastasis01@hanmail.net >

부활절과 갈릴리

그 날 아침 여인들은 예수님을 뵈겠다고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입구를 막은 큰 돌은 벌써 굴러져 있었습니 다. 주의 천사는 그들에게 “그분은 살아나셨다.”라고 증언하였으며, 여인들은 “빈 무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천사는 계속하여 이르기를 “갈릴리로 가라. 말씀 하신대로 거기서 그 분을 보리라.”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10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하십니다.

부활절은 춘분 후 만월, 첫주일 이므로 해마다 날짜가 바뀌고 3월23일 이전과 4월 29일 이후가 될 수 없는데 금년은 4월 24일에 지키게 되었으니까 아주 늦게 걸린 것이지요.

기독교 믿음에서 ‘부활’이 없다면 ‘그리

스도인’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인이지만 부활을 잇는다?’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태복음의 단서에 죽음을 이기신 후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신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갈릴리’하니까 어감도 좋아 낭만의 지역으로 여기신다면 잘못이십니다.

갈릴리는 민생고로 등이 휘어진 막차인 생이 사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안에는 들어올 수 없는 병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며, 허무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악쓰며 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부르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즉 이미 찾으셨고, 부르셨습니다.

그 후 갈릴리로 오신 주님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우리들의 필

요를 채우십니다. “그만큼 고기도 잡았으면,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지.” 또한 “내 양을 먹이라.”하십니다.

주린 채로 일하라고 내보내지도 않습니다. 배불리 먹게 하시고 힘을 얻어 나아가라 하십니다. 그곳에서는 살기가 고달프다는 탄식이 들리지만, 그러나 정작 갈릴리는……살만한 곳입니다.

거기서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로 시작하는 천국대헌장을 선포하셨고, 오병이어서 수 천명 먹이셨고, 맹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고, 각색 병 들린 자를 다 고쳐주신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 갈릴리는 내가 사는 곳, 내가 일하는 곳입니다.

‘부활’의 일차적, 그리고 궁극적 의미는 의의 승리로 영생의 약속이요 죽음의 정

복이며,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또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변화된 나를 통하여 사람이 바뀔 수 있고 만물이 새롭게 됨도 봅니다.

내년 초 12단계 성경공부 마지막 단계 성지순례에서는 그 곳 갈릴리도 보십니다. 갈릴리의 삶이 고달프지만, 갈릴리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죽음을 이기신 후에 나타나신 곳인 줄 아오니,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에게 승리의 기운을 불어넣어주시는 그 주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며 경배 드립니다.

< 제1남선교회장 한형석 안수집사
_ w6383@chol.co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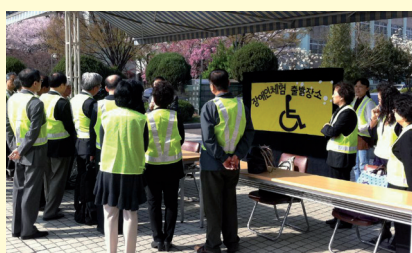
교회소식 이모저모

-무지개잔치 물품기증



5/5(목) 어린이 무지개잔치가 열립니다. 1층에서 물품기증(어린이 선물)과 후원을 기다립니다.
문의: 황남호 안수집사(010.6409.3568)

-장애인주일 일일장애체험



4월 17일(주일) 장애인주일 맞아 일일장애체험행사가 있었습니다. 교회마당 앞에서 출발하여 본당에서 예배를 보는 전과정을 1일 장애인이 되어 체험하였습니다. 휠체어를 탄 지체 장애 체험과, 눈에 안대를 한 맹인체험 그리고 귀마개를 한 청각장애등의 체험을 하였습니다.

-안수집사회 정기모임



4월 10일(주일) 오후3시, 안수집사회 정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날 모임에서는 교회 각 부서에서 실무와 팀장 등 중추적 역할을 하는 안수집사님들이 교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토론을 하였습니다.

-섬김과 나눔(가칭)창립 총회



2011년 4월 5일(화) 중강당에서 사단법인 섬김과 나눔(가칭)창립 총회를 발족하였습니다.

-20 Plus 예비리더교육 수료식



한 공동체의 수준은 리더의 수준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20Plus청년부는 2011년들어 성장하는 공동체를 위해 8주간의 리더양성과정을 신설, 8강에 걸친 강의와 세권의 독서과제, 매일 Lectio Divina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훈련, 매주 암송구절및 M.T, 새벽기도등으로 강도 높은 훈련끝에 지난 4월 10일 25명의 리더를 배출하였습니다. 수료한 인원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한 그룹은 새신자반으로 투입 6주간 새신자와 함께 한 후 일방겨자씨로 등반시 리더로 섬기게 될예정이며, 또 한 그룹은 20명으로 늘어난 겨자씨를 적정인원으로 나누어 섬기게 될 예정입니다. 20Plus 예비리더 교육 과정 이름은 LETS(Leadership Education & Training School)입니다. 새롭게 섬김의 자리로 도약할 예비리더들에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Let's Go!

< 정재상 목사 _ jaesang72@naver.com >

* 성경_한자로 풀어보기

하나님께서 계시(啓示)한 말씀을 기록한 성경(聖經)은 하나님 자신의 존재(存在)하심을 근거로 피조세계(被造世界)의 기원(紀元)에서부터 그 세계의 궁극적(窮極的)인 완성까지 전 우주적(全宇宙的)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를 계시하는 책(冊)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形象)대로 지음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구속사역(救贖使役)의 궁극적 대상인 인간의 본질과 실존적(實存的) 문제 모두에 대한 명쾌(明快)한 해답을 포괄(包括)하고 있는 책입니다. 서양선교사(西洋宣教師)에 의하여 영어성경이 최초로 국내에 들어왔을 때 갑오경장(甲午更張) 이전에 통용(通用)하던 언어로 번역(翻譯)된 까닭에 현대어휘(現代語彙)와 다른 부분이 많고 특히 어려운 한자어

(漢字語)로 점철(點綴)되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한글 전용시대(專用時代)를 사는 우리들이 한 세기(世紀) 전(前) 선조들의 언어생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단절(世代斷絶)에서 원인(原因)을 찾을 수 있겠지만 조금 노력하면 충분히 극복(克服)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어려운 한자어의 해석(解釋)과 함께 한자의 원리(原理)를 풀어 밝힘으로써 성경의 완전(完全)한 이해와 한자공부의 묘미(妙味)를 맛볼 수 있도록 이 난(欄)을 마련하고 연재(連載) 하겠사오니 지적(知的)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편집부)

復活(부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復活(부활)이요 生命(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 11: 25~26)

復活(부활)의 辭典的(사전적)의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이다.
復活을 破字(파자)하여 분석해보자.

★ 復은 𠬪(자축거릴 책)과 復(거듭할 복)으로 이루어진 글자인데 𠬪은: 겹다. 가다. 많은 사람. 행위의 의미가 있고 復은: 거듭하다. 되풀이하다의 의미가 있으므로 「갔던 길을 되돌아오다」의 뜻이다. 따라서 「회복할 복. 다시 부」로 쓴다.

★ 活은 水(ᄇ. 물수. 삼수변)과 舌(혀 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갈증으로 죽게 된 자가 물이 혀에 닿으니 살아난다.」의 뜻이 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盞)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 노대홍 기자 _ rdhteacher@hanmail.net >

전화신앙 상담 ☎ 416-5183

화 ~ 토요일 : 오전 9 ~ 12시, 오후 1 ~ 5시 (토요일은 오전만)

|오늘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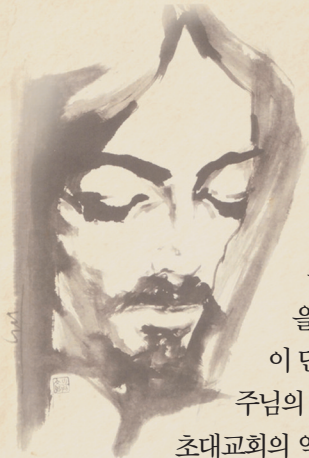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_ 롬 1:4

동 권 제 283호
발행인 담임목사 박원호
발행처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2011년 4월 24일

함글함글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부활의 참된의미

주님의 부활사건이 어느덧 2천년의 역사를 흘러왔습니다. 이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부활이 주는 의미는 늘 새로운 역사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2011년에도 부활절이 찾아왔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가슴에 젖어드는 간절한 바람이 하나 있다면, ‘부활이 단순한 구호나 행사에서 그쳐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입니다.

주님의 부활사건은 그 자체로 놀라운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엄청난 생명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초대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생명력을 지닌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가 교회로 태생하고,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부활 사건이 있었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입술로는 주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지만, 그건 입술의 고백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사건 이후에 그 고백은 삶의 온전한 고백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상 나라에 속해 살아가지만, 나의 참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제자들은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증명해 보여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부활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부활하게 하심이요, 우리의 구속주로 다시 오실 생명의 주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구원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 능력은 구원 받은 우리에게도 역사하여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첫 사람 아담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정녕 죽으리라.’하신 말씀을 따라 죽었습니다. 새 사람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말씀에 복종’ 하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부활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롬 5:19)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다시금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온 몸과 마음으로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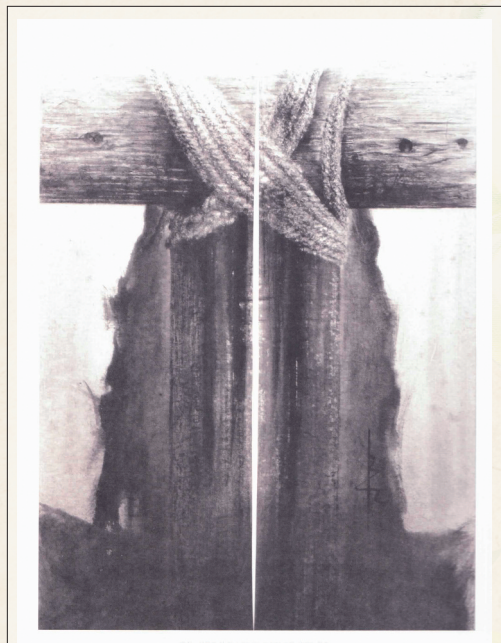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우리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또한 그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통치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새 사람의 모습을 입은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기 위함입니다.

〈담임목사 박원호〉

부활의 묵상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
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
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
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 10:19-20]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무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힘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부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휘장 가운데 새롭고 산 길을 열어
하나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로 초대하신 예수,
십자가가 갈라지고 나의 등 뒤에서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
대신하여 죽고, 위하여 부활하셨노라고
천둥소리 가운데 말씀하신다.

저 갈라진 틈새,
새롭고 산 길로 어서 들어오라고
손짓하며 부르신다.

내가 다 이루었노라...
네의 영원한 빈 무덤을 위하여 내가 죽었노라.

*글그림제공 - 문순의 화해의 시간 中 ‘휘장, 새롭고 산길’

주간 목회력

〈입교, 세례식〉 4.24(주일) 4부예배 / 대예배실
〈부활절 축하 음악예배〉 4.27(수) 오후7:30 / 대예배실
〈유아 세례식〉 5.1(주일) 3부예배 / 대예배실
〈서울 은퇴목사 초청예배〉 5.4(수) 오전10:30 / 중예배실

〈어린이 무지개잔치〉 5.5(목) 오전9:30~오후3:30
〈제174회 평양노회〉 4.25(월) ~27(수) / 강북제일교회
〈목사안수식〉 4.26(화) 오후2시 / 강북제일교회
김주형 전도사, 문현주 전도사

예수님 남기신 마지막 일곱 말씀 _ 주님 은총 가득했던 ‘국악으로 드리는 성금요일예배’



성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하기 위하여 홀로 감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날이다. ‘국악으로 드리는 성 금요일예배’가 4월 22일 오후 1시 주님의교회 대예배실에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개최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마지막 일곱 말씀을 주제로 한 이번 예배에서는, 특히 한국의 전통 연희인 판소리와 국악 연주를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순간들을 표현함으로써, 놀랍고 새로운 감동의 순간들이 연출되었다. 최남영의 해금, 유숙경의 가야금, 어경준의 대금 등 국악 악기 연주와 최영순의 첼로, 유윤정의 키보드, 김성희의 오르간 등 서양 악기 연주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화음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가 동서양을 막론한 이 땅 모든 생명에게 향한 것임을 새삼 일깨워주는 듯했다.

예배 시작 전부터 삼삼오오 자리 잡은 약 1천명에 이르는 성도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도를 함께 한 뒤 성 금요일예배의 막이 올랐다. 묵상기도 시간 동안 어두웠던 조명이 밝아지면서, 무대 위 화면에는 예수님이 힘겹게 십자가를 메고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이 잡혔다. 성극팀에서 준비한 퍼포먼스로, 가시면류관을 쓴 예수님이 비틀거리면서 십자가를 메고 3층에서 한 계단, 한 계단을 내려오는 장면에 일순 숙연해지면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고

통을 목격한 듯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예수님은 무대 위에 오른 뒤, 기진하여 쓰러졌다. 장로 두 분이 그 십자가를 무대 가운데 세우는 모습은 성 금요일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공광송 목사의 인도로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위에’를 회중이 찬양한 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일곱 마디 말씀을 주제로 제1연부터 제7연까지의 순서가 이어졌다. 판소리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백현호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흥보가 이수자로 지정된 젊은 소리꾼이다. 백현호는 말씀의 배경을 설명하는 해설 부분은 판소리에서 설명을 뜻하는 아나리로, 예수님의 말씀 부분은 창으로 소리함으로써, 그 극적인 순간을 한국의 전통 정서와 가락에 실어 감동적으로 표현했다. 제1연에서는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일곱 마디의 말씀을 하셨음을 아나리로 설명하고, 그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를 창으로 연주하였다. 조정현 목사가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은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제1연을 마쳤다. 제2연은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달렸던 강도 가운데, 회개한 강도에게 하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이었

으며, 극심한 육신의 고통 가운데에서 회개하는 강도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총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의미한다는 박원호 담임목사의 말씀이 이어졌다. 제3연은 예수님께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모시기를 부탁하면서 하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는 말씀이었으며, 기악 합주로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가 연주되었다. 유성훈 목사는 절망의 순간에 희망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총이라는 말씀을 전했다. 제4연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괴로워하시면서 기도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는 말씀이었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영상과, 헨델의 ‘날 올게 하소서’를 배경으로, 마리아의 눈으로 본 예수님의 고통을 춤으로 승화시킨 윤병주의 무용 공연이 이어졌다.

제5연은 예수님께서 목마름을 호소하시면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신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으로, 권대선 목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목마름은 예수님이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심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기 위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다. 제6연은 죽음으로 모든 인간의 죄와 죽음을 물리침을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였으며, 이어서 기

악 합주로 216장 ‘성자의 귀한 몸’이 연주되었다. 최용석 목사는 삶의 절망에 짓눌린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을 전했다. 제7연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였으며, 조광민 목사는 지상의 시역을 마치고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뜻한다는 말씀을 전했다.

일곱 개의 말씀을 전한 뒤, 박원호 목사의 인도로 은혜로운 성만찬을 나누고,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날 예배의 헌금은 실로암 안과 병원에 시각장애인 개안수술 비용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주님의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기기 위한 다양한 예배의 방식을 모색해 왔다. 지난 2009년에는 부활절의 의미를 축제로 표현하기도 했으며, 2010년에는 성금요일 음악예배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마지막 일곱 말씀을 주제로 한 시온성가대 주관의 칸타타 ‘십자가상의 칠언’을 무대에 올린 바 있다. 이번의 ‘국악으로 드리는 성 금요일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한국의 전통적 정서와 예술의 방식을 통해 보다 깊이 있게 되새길 수 있었던 드문 기회였다고 기억될 것이다.

(장경식 기자)

두님의교회 세례 교인되심을 축하합니다

〈입교〉

유성진, 이현우, 송준호, 고주형, 이주영, 이예린, 곽주형, 김진우, 선현창, 유상훈, 박기태, 이윤환, 김보영, 이예성, 김시는 김한진, 원주연, 김도희, 정예리, 김한엽, 이민영, 정현아, 석소미, 홍유미, 김영복, 이세형, 장원준, 차승정, 정재환, 김증권

〈세례〉

유민석, 김의윤, 김인엽, 김창립, 박성진, 심재현, 김영서, 김다솔, 고가연, 이동민, 이보람, 김원의, 박지원, 김상두, 김연수, 석상곤, 홍현송, 사지선, 서수련, 차민경, 김송연, 전해리, 박다혜, 이지훈, 강대수, 강미정, 강소희, 경규철, 권오철, 김금자, 김세진, 김창석, 김태용, 박수경, 박영진, 성주은, 신수원, 양종찬, 육상희, 윤재준, 이유진, 이준영, 이지현, 임현교, 장병욱, 정서진, 정수경, 정영란, 정현석, 최고웅, 최미주, 최은규, 최춘휴, 한경하, 한원흠, 황명자, 황의순 / 2011년 부활절에

칸타타「골고다의 아침」_이동훈 작곡

음악사에서 1600년경부터 1750년경 까지를 바로크(Baroque) 시대라고 한다. 이 시대에 발달하고 성행한 장르 중에 대표적인 것은 오페라(oper)와 오라토리오(oratorio), 소나타(sonata)와 칸타타(cantata)이다.

오페라는 음악에 연기, 무대 장치, 의상 조명 등이 종합된 예술로서 규모가 매우 큰 음악이다. 오페라를 연기, 무대 장치, 의상 조명 등이 없이 연주회용으로 연주하는 것을 오라토리오라고 한다. 따라서 오라토리오에는 오페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나타는 기악곡의 한 장르로서 악장(movement)이라고 부르는 곡들이 몇 개(대개 3-4개) 모여져 이루어진다. 따라서 몇 개의 악장으로 되어 있는 기악곡을 소나타라고 한다. 바로크시대에 발달한 소나타는 그 다음 시대인 고전파(Classical) 시대(1750?-1820?)에 꽃을 피웠는데, 예를 들면 이것이 피아노 독주를 위해 쓰이면 피아노 소나타, 플루트를 위해 쓰이면 플루트 소나타라고 한다. 교향곡도 소나타의 종류이다. 즉, 소나타 형식에 맞추어 쓴 관현악곡을 교향곡이라고 한다.

칸타타는 소나타가 몇 개의 악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본 따 성악곡에 적용한 것으로서 소나타 보다는 악장 수가 많아 대개 6곡 내지 10곡 정도로 되어 있다. 이 곡들은 서로 관련성을 지닌 독창곡, 중창곡, 합창곡들로 이루어지며 관현악이 반주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칸타타는 서로 관련성을 지닌 몇 개의 곡들로 되어 있는 성악곡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오라토리오와 칸타타 모두 세속적인 것도 있고 종교적인 것도 있는데 종교적인 것이 압도적으로 많아 대개의 사람들은 오라토리오와 칸타타가 종교음악에서만 다루어지는 장르로 단정 지어 생각하는 경



가 많다.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절기에 맞추어 음악예배를 드릴 때 칸타타를 많이 연주하다 보니 유감스럽게도 칸타타 자체를 음악예배라고 정의하는 사람이 많다. 교회에서 이 곡 저곡을 몇 개 모아 연주할 때도 칸타타를 연주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곡 저 곡 몇 개 모아 연주하며 ‘우리 교회 이번에 칸타타 연주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말이다.

이동훈의 「골고다의 아침」은 10개의 곡을 하나의 세트로서 하는 칸타타이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부터 잡히시고 고난 받

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 무덤에 묻히셨다 부활하시는 장면까지를 하나의 스토리로 하여 음악으로 나타내었다. 독창자가 때로는 복음사가(Evangelist), 마리아, 강도 등의 역할을 맡고 있고, 합창은 때로는 성난 군중으로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때로는 수많은 천사의 무리가 되어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한다.

2004년 이화여자대학교 종교음악과가 주최하는 전국 성가대 지휘자 세미나의 교재로 위촉되어 작곡한 것이다. 그 동안 전국의 많은 교회에서 연주되었으나 작곡가가 직접 반주를 관현악곡으로 편곡하여 연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론 작곡가 자신이 직접 지휘하여 연주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같이 귀한 부활절 칸타타 「골고다의 아침」은 작곡자이신 이동훈지휘자가 3부 살롬 찬양대와 함께 오랜 시간 정성으로 준비하여 4월 27일 수요일에 하나로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번 부활절 연주를 위하여 진력(盡力)하고 있는 살롬 찬양대원 여러분께 힘찬 격려의 박수갈채를 보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큰 감동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또한 예수님의 수난을 생각하며 고난주간을 함께하신 성도님들께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좋은 선물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웃과 친지들을 초청하여 수준 높은 음악을 통한 전도(傳道)의 문(門)이 활짝 열리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노대홍 기자 _ rdhteacher@hanmail.net 〉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를 돌아보며

지난 4월18일(월)~23일(토)까지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가 주님의교회 대에배실에서 열렸습니다. 현재 총신대 구약학 교수인 김지찬 목사께서 강사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고난주간에 던져야 할 6가지 질문”이란 주제로 하루하루 깊은 묵상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월):그대는 신의이들들의세상에서하나님의자녀인가?

(눅17:24-37)

(화):주여아들로가사나이가?(요14:1-7)

(수):그대는반석(베평터)인가,겔림돌(스칸달론)인가?

(마16:13-26)

(목):그대는무엇을갈구하는가:인간승리인가,

하나님의승리인가?(골2:12-15)

(금):왜하필이면십자가인가?(마27:32-44)

(토):그대는평생깊어도빛진자의모습인가?(마25:24-30)

매시간 주시는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새로운 헌신을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힘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또한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의 능력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하루 하루가 이어졌습니다. 주님을 향한 첫 사랑의 회복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다시금 무릎 꿇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충성이 회복되기를 새벽마다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를 새롭게 하시며 또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하며 깊이 깨닫고 깊이 헌신하는 복된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로 정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 앞에 바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위한 열심을 회복하기를 기대합니다.

〈 정선화 기자 _ nihaoj@hanmail.net 〉

신의 이들들의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거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할 각별한 의미와 사명감을 깨닫습니다. 반석과 겔림돌의 이중적 삶은 '나 홀로' 겪는 번뇌가 아님을 새삼스레 깨우쳐 주신 교수님의 명설교에서 큰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 최종업 권사 _ jongpch@naver.com 〉

부활절을 맞으며

- 그림으로 만나는 부활의 다섯 장면 -

첫 장면 / 만찬 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다

요한복음 2장 2-30

2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6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2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2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둘째 장면 / 붙잡히시다

마태복음 26장 45-56

45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48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49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56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셋째 장면 / 십자가에 달리시다

누가복음 23장 26-47 / 히브리서 10장 19-20

26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33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44 때가 제육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하더라

45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46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넷째 장면 / 십자가에서 내려지시다

요한복음 19장 38-42

38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39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 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40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41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42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다섯째 장면 / 부활 하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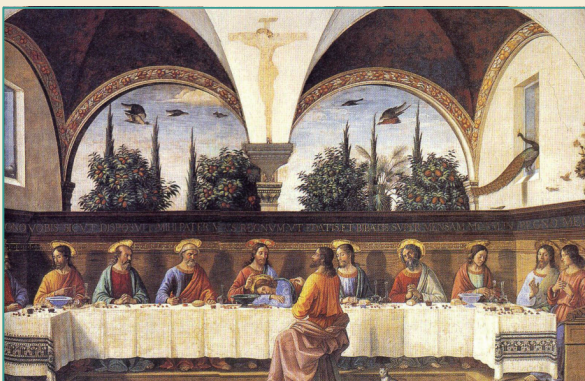
요한복음 20장 1-4

1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2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3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4 둘이 같이 달음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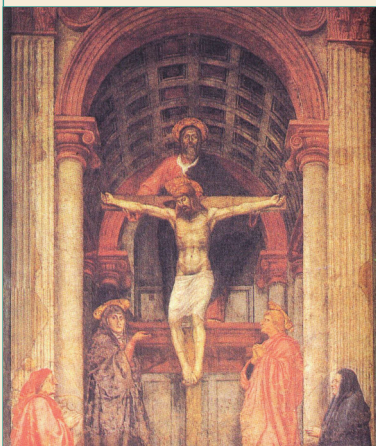
최후의 만찬은 크게 세 가지 장면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최후의 만찬이 시작되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 둘째, 예수님이 자신을 파는 자가 있다고 말한다. 셋째,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이것은 자신의 살과 피라고 언급한다. 그림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는 요한이 보이고, 일렬로 된 식탁 맞은편에 유독 유다만 홀로 앉아 있다. 또한 유다만 머리에 후광이 없으며, 사악함을 상징하는 고양이 유다의 옆에 그려져 있는 반면 영원불멸을 상징하는 공작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탁 쪽에 그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 D. Ghirlandajo, 최후의 만찬, 1480



지오토의 이 그림에서 두그룹으로 나뉜 무리가 보인다. 왼편 무리는 유다가 예수님을 밀고하는 대가로 은전 30을 받는 중이고, 오른편 무리는 서기관들로, 그 중 화면의 앞쪽의 인물이 검지를 세워 반대쪽에서 행해지는 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서양회화에서 제스처는 시선과 함께 보는 사람의 주의를 집중하는 중요한 회화적 장치였다. 검지를 세운 손은 그림이 그려진 그 당시 14세기(트레첸토)의 산물로서 특히 그림을 그린 지오토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그림에서 손가락이 지시하는 대상은 화면 안에 있으므로 관람자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그림 안으로 들어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대상에 더욱 집중하게 된다.

+ Giotto, 붙잡히는 예수, 1305



“삼위일체”라는 마사치오의 그림은 피렌체 역 앞의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의 벽에 그려진 그림이다. 원근법으로 그려진 그림은 마치 벽을 뚫고 그림속의 십자가가 살아있는것 같이 느껴질 정도의 극적인 장엄함과 엄숙한 건축적 구조를 갖고 있기에 우리는 그림속의 인물들을 손으로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십자가상의 죽음이 인류구원의 상징이요, 곧 그 의미를 반영한 듯 승리의 개선문을 배경으로 그려진 그림은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받쳐 들고 있고, 성자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쓴 채 십자가에 달려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머리 사이에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그려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이 성부, 성자, 성령의 완벽한 하나됨을 표현한 그림이다.

+ G. Masaccio, Trinity(삼위일체), 14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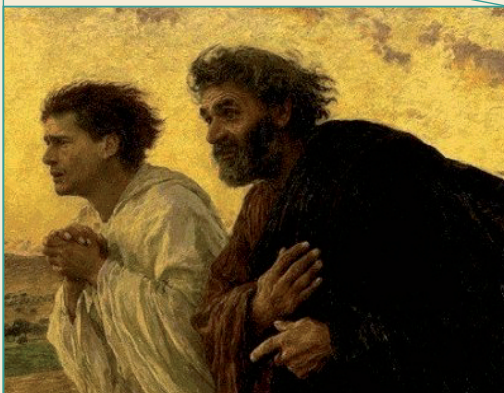


안식일에 시체를 현장에 남겨서는 안 된다는 유대 법에 따라, 목숨을 거둔 예수님은 즉각 십자가에서 내려져 매장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가톨릭문화권의 루벤스 그림과 달리 네덜란드의 개신교도인 램브란트가 그린 “십자가에서 내리심”이라는 이 그림에서 우리는 격정적으로 울부짖는 슬픔이 아닌 소리 없이 흐느끼는 아픔을 감지할 수 있으며,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을 자제하며 예수님의 시신을 차분하게 수습하는 아리마대사람 요셉과, 십자가 위에서 못을 빼내어 힘없이 늘어진 예수님을 조심스럽게 옮기는 흰 수염의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어둠을 밝히는 한줄기 빛이 예수님을 비추고 있는 현장은 마치 가까이에서 보는 것 같은 침묵과 긴장이 더해져 보는 이를 더욱 안타깝게 하는 수작이다.

+ Rembrandt, 십자가에서 내리심, 1634



부활의 아침 성묘로 달려가는 제자들의 얼굴엔 지난날의 어두운 밤, 예수님이 돌아가신 슬픔과 충격에 가득 차 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몰라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책감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을 것이다. 다음날 새벽녘, 두 여자가 찾아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 동이 터오는 부활의 아침. 설렘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며 달려가는 왼쪽의 흰 옷 입은 사람은 요한의 모습이며, 두려움에 가슴을 진정시키며 눈물을 머금은 슬픈 눈으로 달음질하는 오른쪽의 검정옷의 사내는 베드로가 아닐까.

+ E. Burnand, 성묘로 달려가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 1898

다음의 책들을 참고하였습니다.

. The Bible-Illustrated selections . 그림 속 예수를 만나다 . 나의 서양미술 순례 . 서양미술사 . 파노프스키와 뒤러 . 시작과 현대성 . 마넨그림에서 찾은 13개 퍼즐조각